해제

1. 생애와 저술의 배경

율곡(栗谷) 이이(李珥, 1536~1584) 선생(이하 존칭생략)은 조선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워낙 잘 알려진 인물이라 새삼스럽게 장황하게 소개할 필요가 없겠다. 간략히 말하면 율곡은 아버지 이원수(李元秀)와 어머니 사임당(師任堂) 신씨(申氏)의 셋째 아들로서 외가인 강원도 강릉 오죽헌에서 출생하였다. 본관은 덕수(德水)이며 자는 숙헌(叔獻), 율곡(栗谷)은 호인데 이것 외에 석담(石潭)·우재(愚齋)라는 것도 있다.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13살 때 이미 진사시에 합격하였다. 그 후 아홉 차례의 과거에 모두 장원으로 합격하였고, 1563년 호조좌랑을 시작하여 관직에 진출하였다. 중요한 관직을 역임했으며 병으로 사직하는 등 나아가고 물러나기를 반복하였다. 만년에 병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를 지냈다.

율곡의 관직생활은 대략 20년이 된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당시 국가와 사회의 모순과 폐단을 지적하고 개혁을 주장하였으며, 붕당을 완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의 개혁사상을 이른바 경장론(更張論)이라 부르는데, 조선이 개국한지 200년 가까이 지나면서 각종 모순과 폐단을 노출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러한 개혁을 주장하는 글은 이 「만언봉사」 이외에도 「동호문답」과 많은 상소와 저술이

더 있다.

율곡이 관직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을 때는 1563년 명종 19년 때이다. 「만언봉사(萬言封事)」를 올릴 때는 1574년 선조 7년 때이므로 그로부터 11년 뒤가 된다. 그러니까 이 글은 관직생활을 통틀어 전반부에 해당하는 비교적 젊을 때의 글이다.

「만언봉사」는 임금만 볼 수 있도록 밀봉해서 올린 상소문이며 글자 수가 만 자나 된다고 하여 이름 붙였는데, 실제로는 1만 2천자가 넘는다. 이 상소문을 쓰게 된 동기는 서울 하늘에 흰 무지개가 해를 가리는 이변이 생겨서 선조가 신하들의 바른 말을 널리 찾는 구언(求言)에 응한 것이다. 요즘 같으면 흰 무지개가 해를 가리는 것이 무슨 대수가 되겠는가마는 당시의 관습은 그렇지 못했다. 재앙과 이변은 모두 군주가 나라를 잘못 다스려 생기는 일로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또 일정한 철학적 배경이 있으나 본문 해설에서 다루기로 하고, 일단 재앙과 이변이 나타나면 임금은 삼가고 조심하며 반성하고 바른 정사를 펼쳐야 한다. 이런 까닭에 선조가 신하들의 구언교서를 내렸고, 그래서 율곡 또한 이 「만언봉사」를 올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글에는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다. 바로 당시 조선이 처한 시대인식이 그 하나이고 또 하나는 폐단을 개혁하자는 주장이 그것이다. 폐단과 개혁의 내용은 뒤에서 다루기 때문에 여기는 단지 두 글의 저술배경이 되는 시대상황만 짚고 넘어가 보자.

조선이 각종 폐단에 직면하게 되는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

나 종합하면 국가시스템의 문제와 아울러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이 문제였다. 국가시스템으로 보자면 먼저 사대부(양반)-양인(상민)-천인(노비)로 이어지는 신분제도가 있다. 이런 신분제도는 사회발전의 저해요인이었다. 이것은 신분제도 그 자체에만 한정되는 문제만이 아니라 생산력과 군역(軍役)이나 세금징수 등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군역은 양인(良人)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공물(貢物)과 함께 백성들을 힘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더구나 당시는 농업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쌀이나 옷감을 생산하여 각종 세금과 또 군역을 대신하기 위해 바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수탈을 당할 수밖에 없고, 참다못해 정든 고향을 버리고 도망하여 유랑하기까지 했다. 도망치면 또 그 인척에게 대신 갚게 하는 것이 관례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야말로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자조적으로 말하는 '헬조선'이 진정으로 어울리는 말이었다. 더구나 지방 관청의 아전들이나 변방수비를 맡은 하급군관들의 녹봉이 없어 결과적으로 양민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군사력의 향상을 꿈도 못 꿀 형편이었다. 설령 왜적이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당장에 군사의 수를 채울 뾰족한 수도 없었을 것이다. 율곡의 개혁안은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 하나 가치관의 문제는 당시의 풍속과 관련이 된다. 오랫동안 사화(士禍)를 겪으면서 바른 말을 하면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이 만연해 있었던 것 같다. 사회정의를 위해 애쓰다가는 불이익을 당한

다는 학습효과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눈치 보며 현실과 적당히 야합하는 처세가 시대의 풍속으로 자리 잡았는지 모르겠다. 특히 선조가 즉위한 초년에는 명종 때의 을사사화가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 후유증으로 비단 일반 백성들만이 아니라, 조정의 대신들도 무사안일하게 지나가고자 했다는 율곡의 평가가 그것이다.

종합하면 성리학적 토대 위에서 건립된 조선왕조 시스템이 그 외형적 껍데기만 남고 실질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민본을 내세우지만 민본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렇다고 나라의 재정이나 국방이 튼튼하지도 못했다.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초창기 아무리 잘 만든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흐르고 상황이 바뀌면 낡은 것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그 시스템에 이득을 본 자들은 바뀌는 것을 거부하겠지만,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짐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인간의 가치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은 학문인데,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인간이라 결국 올바른 학문에 종사하는 일 없이 제도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바른 학문에 힘씀으로써 같이 나아갈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도와 함께 정신의 개혁이 등장하며 그것이 율곡이 이 글에서 말하는 경장론(更張論)의 핵심이다. 결국 유교의 본령인 자기 몸을 닦아 남을 다스리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가치를 되살리려고 한 일이다.

2. 만언봉사의 체제와 내용

「만언봉사」는 장문의 상소문이다. 1인칭의 글로 상대에게 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일명 「갑술만언봉사(甲戌萬言封事)」 또는 「만언소(萬言疏)」라고도 불린다.

이 글은 맨 앞에는 글을 쓰게 된 취지가 있고, 이어서 중간부분 그리고 끝에 맺는말로 되어 있다. 중간 부분에는 당시의 폐단 7개 항목과 대책 9항목으로 서술하고 있다. 크게 보면 현실인식과 대책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다.

먼저 현실인식에 해당되는 곳은 2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때를 맞춘다는 시의(時衣)와 실질적 노력인 실공(實功)이 없는 7가지 폐단이 그것이다. 7가지 폐단에는 상하가 서로 믿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맡은 일에 실질적 노력이 없음, 경연(經筵)에서 성취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현인을 등용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재이(災異)에 대응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여러 정책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 인심(人心)에 선을 지향하는 실질적 노력이 없음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대책에도 2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통치자로서 임금이 자신의 몸을 닦은 수양의 4개 항목과 백성을 편안케 하는 5개 항목

이 그것이다. 4개 항목은 뜻을 세움, 성학(聖學)에 힘씀, 사심을 버리고 공평한 도량을 넓힘, 어진 선비를 가까이 함이 그것이고, 5개 항목은 정성스런 마음을 열어 신하들의 충정을 얻음, 공안(貢案)을 개혁하여 지나치게 거두어들이는 폐해를 없앰, 절약과 검소를 숭상하여 사치 풍조를 개혁함, 선상(選上)의 제도를 바꾸어 공천(公賤)의 고통을 덜어 줌, 군정(軍政)을 개혁하여 안팎의 방비를 굳건히 함이 그것이다.

우리는 이 대책에서 몸을 닦는 수양과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 바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유학의 핵심적 이념이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서에서는 「만언봉사」를 올리게 된 선조의 구언교서를 같이 싣고 주석과 해설을 덧붙였다.

3. 현대적 의의

지금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그렇지만 주권을 가진 국민들이 말 그대로 자유를 누리고 그들의 뜻에 의하여 나라가 잘 다스려진다고 믿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자유란 그저 헌법상 정해진 자유일 뿐이지 적극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오로지 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민주주의란 또 어떠한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지도자가 다수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할 때는 어찌할 방도가 없다. 민의는 언제나 왜곡되기 마련이고 정의는 늘 그래왔듯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 우리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젊은이들의 희생 위에 겨우 명맥을 유지하여 왔다. 21세기가 되어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희생이 줄어든 결과 지금 우리들은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에 놓였는가? 국가지도자에 의한 헌정파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지 않는가?

비록 지금과 국가체제가 다르기는 해도, 우리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유교적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뜻있는 선비들은 이런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다. 굳이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절의를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선시대에도 뜻있는 선비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유교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수많은 충신과 열사들의 행적을 보라! 그들이 있었기에 그 위태롭던 조선이 500년이나 유지되었다.

그들은 결코 한 사람의 왕을 위하여 그렇게 충성하거나 희생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런 절의와 의리를 지킨 것은 유교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 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반하거나 소홀히 할 때는 목숨을 걸고 직언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이 견지한 정치적 이상은 왕도정치(王道政治)였다. 그것은 왕이 덕으로 백성들이 살기 좋게 잘 다스리는 유교적 유토피아이다. 그러니 유학자들이 충성을 다한다는 것은 이런 이념이나 원칙에 충실하다는 뜻이지 왕 개인의 안위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

율곡이 이 「만언봉사」를 올리게 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비록 선조가 직언을 올리라고 해서 쓴 글이기는 하지만, 내용 속에 등장하는 숨김없는 말은 어쩌면 목숨을 걸고 하는 직언이다. 이를테면 다음의 상소 내용을 보자.

"전하께서는 밝은 지혜가 넉넉하시나 덕량(德量)은 넓지 못하시고, 선(善)을 좋아하심은 얕지 않으시나 많은 의심을 떨쳐버리지는 못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의견을 올리려고 힘쓰면 지나친 월권이라고 의심하고, 기개와 절개를 높이는 자를 과격하다고 의심하고, 여러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당파가 있다고 의심하고, 죄과가 있는 자를 공격하면 계략으로 모함한다고 의심하십니다. 더구나 명령을 내리실 때는 말투와 억양에서 좋아하고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치 않으십니다."

이 말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바탕을 두고 한 말이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완전히 인신 공격적 발언이다. 발언의 수위를 보면 자칫 왕에 대한 불경죄로 몰아 처벌을 당할 수도 있었다. 만약 당시 조정에 이전의 조정처럼 힘 있는 간신이 있었다면 이 상소를 빌미로 율곡을 처벌하자고 주장했을지도 모른다. 오늘날 누가 감히 대통령이나 자기 상관에게 이런 직언을 올릴 수 있겠는가? 알량한 자리라도 지키려고 바른 말을 못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되레 아첨하며 그릇된 곳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국 율곡이 걱정하는 것은 백성이었다. 백성이 잘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지고 왕이나 신하들의 지위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사상이며 유교 또한 민본을 중요한 가치로 채택하고 있다는 면에서 나름의 생명력이 있다고 하겠다.

물론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라는 민본(民本)과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民主)는 개념이나 정치형태는 완전히 달라서, 정치체제의 우위를 논할 수 없을 정도로 둘은 비교의 대상은 못 된다. 비록 그러하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되씹어 보아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 그 정치체제가 어떠하듯 지도자가 지녀야 할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정치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하는 물음에 그 답이 있다. 전근대적 조선왕조의 왕이나 신하가 그러하듯 오늘날 민주사회의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당대의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며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실의 문제를 알면서 눈감고 외면하거나 때로는 알량한 벼슬자리에 눈멀어 기득권 세력에 야합해 버린다면, 더 이상 지식인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는 더욱 증폭될 것이다. 오늘날 '헬조선'이라는 유행어는 결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영향력 있는 지식인들이 부조리한 현실에 야합하거나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일이다.

바로 여기서 고전의 가치가 빛나며 율곡의 이 「만언봉사」도 우리에게 시사되는 바가 충분하다고 하겠다.